

네트워크회의
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

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의 현황과 과제

서창호
[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]

1. 이슬람사원 갈등의 현황

1) 대구시 북구청 등 공공기관의 혐오 차별 발화의 주체

- 공공기관은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 전무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조치를 일관되게 지속함으로써 무슬림 유학생들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심화 발화시키는 역할
- 공공기관의 반차별적 행정은 이슬람사원을 반대한 주민에게 혐오차별에 대한 정당성과 자신감을 부여: 이슬람사원반대주민대책위 구성과 지속적인 활동의 기반

2)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과제

- 이주민을 탄압하는 정부의 이민청 설립(?) 추진: 이슬람사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침묵은 맞닿아 있다 → “국민이 우선이다!”라는 이데올로기
-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에 대한 제도적 공백 → 혐오차별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 모순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확인

2.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의 의미와 과제

질문 1. 이슬람사원 갈등을 잘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

- 이슬람사원의 완공일까요?
- 혐오차별을 발화시킨 북구청의 공식적 사과일까요?
- 이슬람사원 공사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주민들의 성찰일까요?
- 혐오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응원일까요?

질문 2. 이슬람사원 갈등의 주체는 누구인가?

- 혐오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무슬림 유학생 V 혐오차별의 실질적 행위자 주민
-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 무슬림 유학생 V 불법적 행정주체 북구청
- 인종적 문화적 차별을 받는 무슬림 유학생 V 혐오차별을 용인하는 한국 사회

질문 3.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을 위한 출발은 무엇일까?

- 주민들은 권리를 침해당한다며 한결같은 주장
“주민의 생존권이 우선이다”, “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”는 등의 반대 이유: 무슬림유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고통, 즉 ‘인권침해’에는 애써 눈을 감으면서 ‘권리 침해’만을 주장
- 인권은 권리이지만, 모든 권리가 인권은 아니다
이슬람사원 갈등의 태도, 권리와 인권의 혼용: 자신의 권리가 타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, 즉 관계성과 상호성을 성찰하지 않는 배타적 권리는 권리로서 제대로 설 수 없음.

질문 4. 이슬람사원의 갈등은 보수도시 대구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갈등?